"가정의 달 특수 잡아라"…유통업계, 각종 프로모션 눈길

지역 백화점, 향수·의류 등 선봬
이마트, 상반기 최대 와인 행사

5월 초 어린이날과 황금연휴 특수를 맞은 유통업계가 가정의 달을 마무리할 기념일인 성년의 날과 부부의 날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2층 '다니엘트루스' 매장에서 성년의 날 대표 선물인 향수 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개 구매 시 15%, 2개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비롯해 구매 금액대별 상품 추가 증정 이벤트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비비앙' 매장도 일부 향수 제품에 대해 최대 40% 할인하고 그외 코스메틱 브랜드별로 향수 상품에 대해 특가 혜택, 기획세트 구성 등 성년을 축하하는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마련했다.

광주신세계는 2006년생이 성년이 되는 기념일을 맞이해 정형화된 소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젠지세대에 안성맞춤인 선물들을 제안했다.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는 의류를, '레이브'에서는 가방을 추천했다.

본관 3층에서는 티쏘 등 시계브랜드가, 2층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바이레도' 등 다양한 브랜드가 성년의 날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마트는 기념일 분위기를 돋궈줄 상반기 최대 규모 와인 행사를 개최한다.

높아진 환율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하게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들을 준비했다.

이마트는 사전 협상을 통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재고를 미리 확보해 환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카드사와 연계해 일반 와인은 20%, 화이트·스파클링 와인은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요일별 각각 다른 상품에 대해 특가 행사도 이어진다.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혜택이 주어진다.

이마트앱의 와인그랩 서비스를 통해서는 매장에서 구매하기 어려웠던 프리미엄 상품 ''샤또 무똥 로칠드/라뚜르/오브리옹/마고 1993 빈티지 컬렉션', '골든블랑 빈티지 세븐스타 3종'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홍승현 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다니엘트루스 매장에서 고객이 향수를 시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편의점 CU, 업계 최초 '네이버 지금배달' 입점

편의점 CU는 업계 최초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네이버 지금배달' 서비스에서 배달 및 픽업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 지금배달 서비스 오픈을 통해 1만 8,500여 개 전국 최다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한 퀵커머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의점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과 쇼핑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서비스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이나 웹 페이지의 '지금배달'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반경 1.5㎞ 내 CU에서 1만 원 이상 구매 시 배달비 3,000원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2만 원 이상 구매할 때는 3,000원 할인 쿠폰도 사용 가능하다.

구매 가능 품목은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빈도가 높은 간편식, 디저트, 주류부터 생필품, 얼음, 즉석 커피까지 총 3,000개 종류다.

내달 중 네이버 지금배달 메뉴의 '내 주변 검색' 기능을 통해 가장 가까운 CU 매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매장별로 +1 증정 행사나 단품 할인 등 행사 진행 중인 상품들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이날 총 3,000점을 시범 오픈한 뒤, 이달 중 서비스 안정화 이후 4,000점을 추가 오픈하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환 BGF리테일 온라인커머스팀장은 "전국 최다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퀵커머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5월 가정의달 선물 대세 '건강식품'

광주지역 이마트 매출 신장세

5월 가정의달 선물로 건강식품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 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건강식품 중 건강세트는 32.8%, 건강보조식품은 30.9%, 건강기능식품은 26.1% 전년비 각각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세트는 홍삼·인삼이, 건강보조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배·도라지즙, 유산균·멀티비타민이 인기품목이었다.

바쁜 현대인들 생활패턴에서 개별포장과 휴대용이로 섭취가 간편하며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점이 비결로 파악된다.

이마트 광주점 정승기 점장은 "지역 소비자들이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식품을 선호하면서 관련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양한 상품준비를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이마트 광주점 건강식품매장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마트 제공

홈플러스 모델이 '싱싱회관' 코너를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홈회족' 열풍…홈플러스 '싱싱회관' 매출 최대 15배↑

21일까지 '참치 회 기획전'

홈플러스는 자사 메가 푸드 마켓 '싱싱회관'이 온·오프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생선회 외식비 상승률은 5.4%로 외식 서비스 평균 상승률(3.2%)을 웃돌면서 집에서 양질의 회를 즐기는 '홈회족'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전체 수산물 매출에서 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3년 전 11%에서 올해 3~5월 기준 17%까지 확대됐다. 최근 3년 간 회 매출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자사가 운영하는 '싱싱회관'이 생동감 있는 쇼핑 경험을 제공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방식대로 전문가가 즉석에서 조리해 제공하는 '오더메이드' 회·초밥·롤이 큰 인기를 끌며 '싱싱회관 라이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9%, 점포별 최대 92% 급등하는 등 매장 전체 성장까지 견인하고 있다.

지난 달 '싱싱회관' 메뉴를 온라인으로 확대 적용한 이후 전체 매출이 직전보다 15배 상승하는 등 온라인 반응도 뜨겁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홈플러스는 오는 21일까지 '프리미엄 참치 회 기획전'을 열고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대상으로 참치 모둠회, 참다랑어 모둠회를 기획가에 선보인다. 온라인에서는 15~16일 제주 광어회를 혜택가에 판매한다.

김준 홈플러스 수산팀장은 "마트표 회가 고물가 시대의 외식을 대신할 주요 품목으로 떠오르며 홈플러스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모두 겸비한 회를 안정적으로 수급함으로써 홈플러스만의 차별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